



Heart to God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Hand to Man

구세공보

THE WAR CRY

<https://www.thesalvationarmy.or.kr>



2026.4

제1272호 | 창간 1909.7.1

대장 부활절 메시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달의 말씀

부활의 희망(요 11:25~27)

다음세대의 신앙

134번째 개전국, 선교의 현장에 서다



부활 : 시선의 변화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굴러가던 순간, 세상은 조용히 뒤집혔다. 죽음이 끝이라고 믿던 질서가 흔들리고, 절망이 마지막이라고 여겼던 생각이 무너졌다.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인간이 굳게 닫아 두었던 '끝'이라는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 버리신 사건이었다.

우리 삶에도 저마다의 돌문이 있다. “이건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달라질 수 없어”라고 마음속에 굳게 놓아 둔 돌문이다. 실패의 기억, 상처 입은 관계, 스스로에 대한 실망은 어느새 큰 돌이 되어 마음의 무덤을 막아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그 안에 갇혀 지내기도 한다.

그러나 부활의 이야기는 묻는다. 정말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까? 복음에서 돌문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열렸다. 인간이 닫아 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신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생명은 조용히 길을 찾고 있다.

그래서 부활은 거대한 기적 이전에 ‘시선의 변화’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다시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 어둠 속에서도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빛을 믿는 것이다.

용서를 미루던 마음이 한 걸음 다가가고, 포기하려던 일이 다시 시작되고, 무심했던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순간들. 그런 작은 변화 속에서 우리의 돌문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열린 틈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조용히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온다.

이달의 행사

4월
April

5 (주일) 부활주일

5 (주일) ~ 5.24 (주일) 지방별 50일 전도운동

6 (월) ~ 17 (금) 봄 지방사관회

20 (월) ~ 30 (목) 하사관 세미나(지방별 가자세미나)

26 (주일) 국제 어린이와 청소년 주일

27 (월) ~ 5.3 (주일) 국제 어린이와 청소년 기도주간

27 (월) ~ 30 (목) 군국 브랭글 세미나

27 (월) ~ 30 (목) MS캄보디아사관 역량강화교육

Contents

대장 부활절 메시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 03

이달의 말씀 부활의 희망 (요 11:25~27) | 05

사역소개 구세군 50일 전도운동 | 08

이달의 군국표어 실행 프로그램 영혼사랑 끌어올려! | 10

우리 삶의 돋보기 미디어 광야에서 만나는 부활의 기쁨 | 11

복음의 메아리 총서지방 신창영문 | 12

시설탐방 구세군장애인재활작업장 | 14

간증 1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 16

간증 2 인내로 일궈낸 가족 원원과 아들의 헌신 | 17

다음세대의 신앙 134번째 개전국, 선교의 현장에 서다 | 18

구세군 역사이야기 국제본영 설립배경과 역할 | 20

사회복음 이웃의 겨울에 구세군이 함께하는 “54,400시간” | 22

문화칼럼 미디어 금식(禁食) vs 미디어 미식(美食) | 24

이달의 찬송 찬송가 691장 ‘주님 닳기를 나 소원합니다’ | 25

The War Cry

2026년 4월 1일 제1272호
April 2026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발행

The Salvation Army Korea Territory

창립자 윌리엄 부스

발행인 김병윤

대장 린든 버킹햄

편집인 유지선

사령관 김병윤

인쇄인 김경환

주소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16층
(충정로3가, 구세군빌딩)

전화 02)6364-4017 팩스 02)6364-4099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또는 이메일
(warcry@hanmail.net)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The Salvation Army International Headquarters
101 Queen Victoria Street, London EC4V 4EH
United Kingdom

종로 라-00001호(1960년 7월 1일) 1909년 7월 1일 창간 | 월간지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구세군대한본영 <https://www.thesalvationarmy.or.kr>

2026 대장 부활절 메시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린든 버킹햄
대장

그날은 참 '좋은(good)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니, 과연 그랬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참담한 일을 당할 뻔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심장마비를 느꼈을 때의 상태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꽤 심각한 상황이었고 아내는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저에게도 그 시간은 깊은 고뇌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일까? 이것이 진짜 주님께서 나를 본향으로 부르시는 방법일까? 가족들은 어떡하지? 아내는? 사역은?'

저에게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절대 좋은 토요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히도 두렵고 막막할 정도로 무서운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날은 '좋은 토요일'이 맞습니다. 지난 10월의 그날을 되돌아보며 저는 그 두려운 날에 일어난 기적들을 찬양합니다.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으며, 그들의 신앙적 책임은 곧 행함으로 이어졌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던 구세군인 간호사가 있었고, 그의 동료인 심장 전문의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응급처치와 치료가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까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했고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채워졌습니다. 결국, 그날 일어난 모든 일을 숙고해볼 때, 그날은 '좋은(good) 토요일'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청년병 시절에 저는 부활절 이야기에서 ‘좋다(good)’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금요일(Good Friday)’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날을 ‘좋다(good)’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면, 그날은 무시무시한 날이었습니다. 부당한 유죄 판결, 잔혹한 고문,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날이었습니다. 악의 무기인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대적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참혹한 사건, 추악하고 용서받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참혹함을 간과하지 않고 더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십자가 사건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십자가로 상징되는 순전한 악의 실체와 그 잔혹함이 드러나는 현실 속에서 죄악을 넘어 죽음까지도 정복하는 구속의 사랑으로 그날을 맞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추악했던 금요일을 정말 특별한 ‘성금요일(Good Friday)’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금요일에 예수님은 사랑으로 움직이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증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우리가 이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히 2:3)”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사 53:5)” 이것은 분명 신비입니다. 신비롭고 거룩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성금요일의 사건이 우리의 나옴과 용서, 구원과 자녀 됨을 이루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사랑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회복되

고, 구원받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우리는 치유 받았고 구원받았으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성금요일이 승리의 사건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날은 명백한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먼저, 그날에 예수님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신실하게 순종하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요 19:30).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했고, 모든 것을 끝마쳤다는 선언이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다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두 번째로 악을 물리친 갈보리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죄악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우리는 주님의 참된 승리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요 11:25~26)”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도, 그리스도께 속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결코 마지막이 아님을 선포하셨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막힌 담이 아니라 다른 쪽을 향해 열린 ‘문’입니다. 죽음은 모든 힘을 잃었고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마저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압니다.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삶이며, 그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진정으로 ‘좋은 금요일(Good Friday)’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참 사랑에 붙들린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번역 : 참령 임민영(여성사역총재보)



부활의 희망 절망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

요한복음 11:25~27



참령 강석진
사회복지부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

절망의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질문

요한복음 11장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가장 깊은 절망, 곧 죽음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를 잃었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울음과 탄식이 가득했고, 희망은 이미 무덤 속에 묻힌 듯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가져다주는 분”이 아니라 부활 그 자체,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절망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지금의 상황을 넘어서는 나의 생명을 믿느냐”, “너의 눈앞의 현실보다 더 크신 나를 신뢰하느냐” 이 질문은 고난의 계절을 지나 부활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

구세군의 역사는 언제나 고난의 현장 속에서 피어난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가난과 질병, 전쟁과 사회적 소외의 자리에서 구세군은 늘 예수님의 생명을 붙들고 일어섰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런던의 빈민가에서 들었던 절규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들립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줄 것인가”

구세군인인 우리는 이 질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응답해 왔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자선 단체가 아니라, 절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을 선포하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고난받는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 때, 우리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고통을 직시하되, 그 고통보다 더 크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구세군인인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 믿음을 삶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능력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미래의 부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는 생명
- 상처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생명
- 죄와 중독의 사슬을 끊어내는 생명
-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생명
- 사회의 어두운 골목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는 생명

부활의 생명은 단지 죽음 이후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구세군이 펼치는 구호와 복지, 선교와 영성의 모든 사역은 바로 이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한 그릇의 음식, 한 번의 상담, 한 번의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흔들리지 않는 소망

예수님은 이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고난도, 어떤 상실도, 어떤 죽음도 우리의 존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 “너는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
- “너의 삶은 나의 손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 “너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구세군의 혈화 깃발이 흔들리는 곳마다 이 소망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절망의 땅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 구세군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마르다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이 고백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여전히 무덤에 있었고,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현실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 고난의 현실 앞에서도
- 사회의 어둠 앞에서도
- 개인의 상처와 실패 앞에서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은 부

활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과 공동체와 사역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결론 : 부활의 희망을 들고 세상 속으로

고난과 부활의 계절을 지나며 구세군인인 우리는 다시 한 번 부르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선포하는 공동체
- 고난받는 이웃에게 부활의 희망을 전하는 공동체
-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공동체
-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삶으로 증언하는 공동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주여 그러하외다”라고 고백하며 부활의 생명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구세군인인 우리의 사명은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주님의 생명이 절망을 이기고, 주님의 능력이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논산영문 '팝콘전도'

예수님처럼, 다시 '사랑해 봄'

구세군 50일 전도운동

글 | 선교국

따스한 봄기운과 함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4월이다. 구세군은 매년 부활주일부터 성령강림주일까지 50일간, 전 군우가 한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50일 전도운동'을 전개한다.

사순절의 묵상을 삶의 실천으로

50일 전도운동은 사순절 기간 우리 마음 깊이 새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밖으로 흘려보내는 '사랑 실천 운동'이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넘어, 부활의 기쁨을 품고 이웃의 삶 속에 '예수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귀한 여정이다.

그동안 우리는 모바일 카드, 안부 전화, 작은 선물 나

눔 등을 통해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겨왔다.

지역의 색깔을 담은 '맞춤형 전도'

전국 각지의 영문에서는 지역적 특성과 대상에 맞춘 창의적인 전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 영문은 부족한 일손을 돕는 '섬김 전도'와 온정이 넘치는 '장날 전도'가 있다면, 도시 영문은 일상의 접점을 찾는 '파라솔 전도'와 진심을 담은 '편지 전도' 등이 있다.

복음을 전하는 대상별 전도 방법도 다양하다.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경로당·병원 동행 전도', 주부들에게는 실용적인 '수세미 나눔 전도', 어린이들과 함께 웃

고 즐기는 ‘떡볶이·게임 전도’ 등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전도가 이루어진다.

마음을 여는 ‘복음 먹거리’

“입이 열려야 마음도 열린다”는 말처럼, 정성껏 준비한 먹거리는 복음의 훌륭한 통로가 된다. 썩개떡, 건빵, 빵튀기, 팝콘, 붕어빵 그리고 시원한 커피와 식혜까지. 소박한 나눔 속에 담긴 따뜻한 진심은 이웃의 닫힌 마음을 여는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

또한 줍깅(Plogging) 활동, 물품 후원, 바자회, 작은 음악회, 사진 전시회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은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이웃과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한다.



전주영문 ‘줍깅전도’

내가 바로 사랑의 통로, 예수님처럼 ‘사랑해 봄’

50일 전도운동은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작은 사랑의 실천에서 시작된다. 이번 전도 기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내가 내딛는 ‘작은 사랑의 발걸음’을 통해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자! 일상에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올봄 ‘한 영혼’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주인공이 되길 소망한다.



마포영문 ‘밑반찬 전도’



노원영문 ‘다육이 전도’

이달의 군국표어 실행 프로그램

영혼사랑 끌어올려!

글 | 선교국

50일 전도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군국표어 실행 프로그램 “영혼사랑 끌어올려!”를 소개한다.



‘영혼사랑 끌어올려’ 현수막

온 세대가 즐거운 전도

“영혼사랑 끌어올려!” 실행 프로그램은 모든 세대가 전도에 함께 참여하며 전도의 기쁨을 경험하도록 돕고, 전도 초창주일을 향한 기대와 참여 분위기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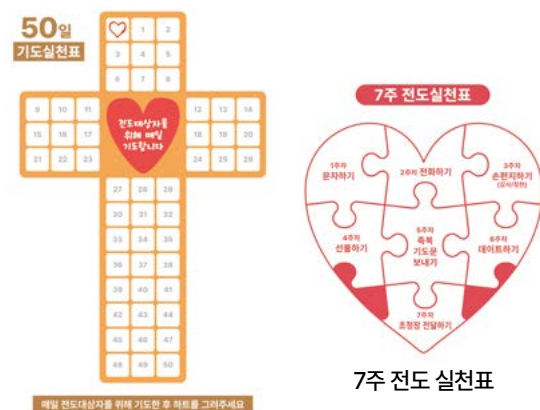
시행바버 르우우브

영문 게시판에 구역/부서별 현수막을 게시하고, 기도
나 문자, 식사하기 등 전도 활동이 이루어질 때마다 빨강
스티커를 부착하여 ‘영혼사랑 온도’를 높여 간다.

2026년도대상자 카드 (유상자료제공)  구세군 <big>50</big>전도 1. 주님의 행방만 전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전도 대상자를 위해 시간을 할애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4f81bd; color: white;"> <th style="width: 10%;"> </th> <th style="width: 40%;">전도대상자 이름</th> <th style="width: 50%;">관계</th> </tr> </thead> <tbody> <tr><td style="background-color: #4f81bd; color: white;">1</td><td> </td><td> </td></tr> <tr><td style="background-color: #4f81bd; color: white;">2</td><td> </td><td> </td></tr> <tr><td style="background-color: #4f81bd; color: white;">3</td><td> </td><td> </td></tr> </tbody> </table>  구세군 영문		전도대상자 이름	관계	1			2			3			2026 전도대상자 카드 (영문자료용)  작성자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2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fce4ec;"> <th style="width: 10%;"> </th> <th style="width: 40%;">전도대상자 이름</th> <th style="width: 50%;">성명 관계</th> </tr> </thead> <tbody> <tr><td style="background-color: #fce4ec;">1</td><td> </td><td> </td></tr> <tr><td style="background-color: #fce4ec;">2</td><td> </td><td> </td></tr> <tr><td style="background-color: #fce4ec;">3</td><td> </td><td> </td></tr> </tbody> </table>  구세군 영문		전도대상자 이름	성명 관계	1			2			3		
	전도대상자 이름	관계																							
1																									
2																									
3																									
	전도대상자 이름	성명 관계																							
1																									
2																									
3																									

전도 요약서(작성자보관용/영문제출용)

- **준비물** : 구역(공동체, 부서) 현수막 제작, 빨강 원형 스티커(16mm)
- 1 **종려주일** : 전도서약서를 나눈 후 전도 대상자(태신자)를 선정한다.
 - 2 **부활주일** : 전도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3 **50일 전도운동 챌린지** : 전도를 실천할 때마다 해당 하는 구역에 스티커를 부착한다.
 - 4 **성령강림주일** : 구역별 시상을 통해 전도에 힘쓰는 것을 격려하고 전도 여정을 완주한 것을 함께 축하한다.



50일 기도 실천표

활용 콘텐츠

7주 동안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돕기 위한 자료로 전도 서약서, 50일 기도 실천표, 7주 전도 실천표를 활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자료는 e-구세군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미디어 광야에서 만나는 부활의 기쁨



정위 정성희
광양영문 목양담당사관

현대적 고난의 재정의:

‘결핍’이 아닌 ‘과잉’의 고통

전통적인 의미의 고난이 박해나 빈곤이었다면, 현대 그리스도인이 마주한 고난은 역설적이게도 ‘과잉된 풍요로움’에서 옵니다. 우리는 초연결 사회 속에서 쉬지 않고 쏟아지는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 ‘과잉된 풍요로움’은 우리 영혼에 다음과 같은 영적 질병을 야기합니다.

첫째, 비교의 지옥입니다. SNS 속 타인의 연출된 일상과 나의 현실을 비교하며 자존감을 상실합니다. 이로써 비교의 지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둘째, 주의력의 분산입니다. 깊은 묵상과 기도가 불가능할 정도로 뇌가 짧은 자극(Short-form)에 중독됩니다. 셋째, 영적 감각의 마비입니다. 세상의 자극적인 뉴스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는 무뎌집니다. 잔인하고 비극적인 소식들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미디어 중독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을 방해하는 ‘우상 숭배’이자, 영적 생명력을 갉아먹는 고난의 핵심이 됩니다. 이러한 영적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킬 처방은 무엇입니까?

미디어 광야: 과잉의 영적 고통을 비워내는 금식

바로 미디어 금식으로 과잉된 영적 고통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미디어 금식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행위가 아

닙니다. 내 삶의 연결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행위입니다. 미디어 금식은 우리를 금식의 고통(고난에 동참)을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확인하던 앱을 삭제하고 무음의 상태로 들어갈 때, 우리는 불안과 금단 현상을 겪습니다. 이 불편함은 우리가 얼마나 미디어에 종속되어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룩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고통을 지나면, 영적 감각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금식을 통해 확보된 시간과 마음의 여백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영적 진공 상태’가 됩니다. 이 자발적인 광야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음을 뚫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영적 건강의 부활:

비워진 자리에 차오르는 회복의 기쁨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어지듯, 미디어에 대한 ‘죽음(금식)’은 영적 건강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미디어 금식으로 비워낸 자리에, 여러분은 세 가지 차원의 회복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 인지적 회복입니다. 비교와 상실에 깨어졌던 마음이 모이고 말씀에 깊이 잠길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생깁니다. 성경의 문장이 텍스트를 넘어 생명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둘째, 정서적 회복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으로 표현되는 ‘좋아요’의 개수나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비교가 아닌 자족과 감사의 평안을 얻습니다. 셋째, 관계의 회복입니다. 미디어 화면에 집중되었던 눈을 들어, 내 곁에 있는 실재하는 이웃과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과 눈을 맞추고, 교제하며 나누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회복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과잉된 자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디어라는 소음을 건너면 그 빈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건강을 찾을 때,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병 입대

충서지방 신창영문

사랑과 행복의 공동체, 구세군 신창영문의 ‘새 도약’

온양영문 통합 후 ‘다음 세대’와 ‘지역 복음화’라는 두 날개로 비상

글 | 참령 윤인재(충서지방 공보담당관)



신창영문 전경

1995년 2월 26일, 혈화기의 첫 깃발을 올린 신창영문은 2026년 개영 31주년을 맞아 지역사회를 향한 뜨거운 구령 열정으로 윌리엄 부스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4년 1월, 온양영문과의 통합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도 ‘구세군 아산지역아동센터’와 ‘구세군지역아동센터(신창)’ 두 개의 병설 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복지와 선교의 조화를 이뤄내고 있다.

사역의 중심: 영혼 구원과 관계 전도

현재 담임사관으로 표희만 사관, 목양담당사관으로 공영자 사관이 사역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2024년 2월 1일에 부임하여 영문 사역과 두 개의 시설이 유기적

인 결합에 집중해 왔다. 두 사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복음 제시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전도'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에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 영문의 문턱을 낮춘 결과, 현재 신창영문은 지역 내에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평판을 얻으며 건강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와 교육

신창영문의 주일 예배는 '전 세대의 통합'에 중점을 두고 함께 드리는 예배에 있다. 매주 일 오전 10시 30분, 온 세대가 함께하는 성경 통독으로 예배의 문을 여는 '연합 성결회'는 세대 간의 신앙 격차를 줄이는 핵심 동력이다. 이어지는 주일 오후 구령회는 각 부서별 특성에 맞춘 '셀 모임'의 형태로 하나님께 열정을 올려 드리며, 부서별로 세대의 차이를 줄이는 동시에 모든 군우 한 명 한 명의 개인적 영적 성숙을 돕고 있다.

아울러 온 세대의 통합비전뿐만 아니라 신창영문의 미래 세대를 향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 매주 평균 13명의 어린이가 모이는 주일학교는 단순한 예배를 넘어 구세군 정체성 교육, 성경 공부, 공동체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활발히 전개하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은퇴 사관과 평신도의 아름다운 동역

신창영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풍부한 영적 자산의 활용이다. 현재 4명의 은퇴 사관을 교육사관과 협력 사관으로 각각 임명하여, 담임사관의 사역을 돕는 구역 강사로 세우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조력자에 머물지 않고 차량 운행과 전문 상담 강사로도 섬기며 영문 운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여기에 헌신적인 정교와 가정단장 부부를 필두로 한 온 성도가 하나 된 마음을 이루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다. 모든 군우가 '믿음의 어머니'라



셀 모임



온세대 성경학교

는 사명 아래 화목하게 협력하며 영문을 세워가는 모습은 다른 공동체에게 귀감이 될 만하다.

미래 비전 : 한국 구세군의 모델 영문으로

신창영문은 앞으로도 선교 활동을 통한 영혼 구원에 전력투구할 계획이다. 두 개의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다음 세대 육성을 지속하는 한편, 성도들이 하나 되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다.

신창영문은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하며,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신창영문 담임사관과 군우들의 얼굴에는 "앞으로 한국 구세군의 표준이 되는 건강한 모델 영문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었다.

31년의 역사를 이어 지역사회에 등불로 빛을 비추기 위해 오늘도 빛을 모으는 신창영문의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

구세군장애인재활작업장

오고 싶은 일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글 | 사회복지부

복음 위에 세워진 직업재활의 터전

구세군장애인재활작업장(참령 박애경)은 2005년 수원시 인가를 받아 매교동에서 설립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다. 2017년 세류동으로 이전하여 보다 안정된 환경과 확장된 공간 속에서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25명의 중증장애인이 근로자로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책임감 있게 근무하고 있다.

작업장은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 위에 세워진 구세군의 사명,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라는 표어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중증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지닌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것이 운영의 출발점이다. 노동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세우고, 일터를 통해 자립과 자긍심을 실현하는 것이 이곳의 핵심 가치이다.

굿모닝 점보롤, 일로 세우는 자립

구세군장애인재활작업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어 자체 브랜드 ‘굿모닝 점보롤 화장지’를 생산하고 있다. 굿모닝 점보롤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에 공급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생산 체계와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이용인들은 원자재 관리, 포장, 품질 검수, 재고 관리, 납품에 이르기까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



구세군장애인재활작업장 전경



‘굿모닝 점보롤 화장지’ 생산

한 공정을 수행하고 있다. 개인의 적성과 역량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합한 직무에 배치하고, 지속적인 직무 개발을 통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08년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하고, 2012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이후에도 품질 향상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시설 이전과 차량 지원, 설비 보강을 통해 생산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2024년에는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을 획득하여 안전 중심의 작업환경을 구축하였다. 또한 시설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 여건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곳의 가치는 생산성과 고용에만 머물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곳이 있고, 맡은 일이 있으며,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다는 사실은 이용인들에게 삶의 활력과 자부심을 제공한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성장

작업장은 이용인과 보호자의 만족도 및 욕구 조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고 있다. 산림체험교육, 원예 활동, 볼링 교실, 요리 교실, 영화 관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걷기대회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5년 3월, 경북 의성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고자 작업장에서 생산한 점보를 화장지를 직접 전달하였다. 세류천 환경 정화 활동인 ‘우리동네 줍깅’, 지역시설 방문 프로그램 ‘감사와 나눔의 기쁨’ 등을 통해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2025년 12월에는 “사랑 한 포기, 나눔 한 그릇” 김장나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용인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김장을 담그고 세류2동 저소득 가정에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실천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개관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지난 2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20년간 한결같이 근무해 온 이용인 홍○○ 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걷기대회

속상을 수여하였고, 오랜 시간 변함없는 사랑과 지원으로 함께해 준 후원자와 지역사회에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터를 향하여

구세군장애인재활작업장은 단순한 생산시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역의 현장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 위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믿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임을 고백한다. 장애는 한계를 규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함께 돌보고 세워 가야 할 공동체적 사명임을 믿는다.

앞으로도 구세군장애인재활작업장은 복음적 가치 위에서 중증장애인이 경제적 자립을 넘어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도록 돕고자 한다.



김장나누기



감사와 나눔의 기쁨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서경 청년부교 내장영문

저는 구세군 교회를 다니던 어머니 덕분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좋았던 저에게 예배는 길게만 느껴졌고, 말씀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 교회를 떠났고, 이후 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춤과 노래에 빠졌고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하지만 18살 가을,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뼈의 영양 상태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몇 년간 붙잡고 있던 꿈을 내려놓으며,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 속에서 깊은 공허함과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 교회에서 보았던 부교님의 연락을 받고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없었지만 작은 봉사를 맡으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구세군 전라지방 찬양팀 ‘위트니스’를 통해 또래 크리스천들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니까?”라는 질문이 제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대학 진학을 고민하지 않던 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주의 한 기독교대학 치위생과에 합격하게 되었고, 최선을 다해 학과 수석이라는 결



“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 지에 대한 질문이 생겼고
순종의 마음으로
‘의료 선교’라는 비전을 가지고
해외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과를 얻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에, 학교 기독교 공동체에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전환점은 여름 수련회에서 찾아왔습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는 처음으로 제 죄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살아왔던 죄들이 선명하게 보이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저라도 사랑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두렵습니다. 제게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또렷하게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서경아, 괜찮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

께서 살아 계시며, 제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이후 저의 신앙은 더 이상 형식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질문이 생겼고, 순종의 마음으로 해외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여러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춤과 치위생 전공이라는 작은 달란트가 누군가를 섬기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았고, 제 안에는 ‘의료 선교’라는 비전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던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만남과 공동체를 통해 저를 이끌어 주셨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은 제 삶을 붙드는 확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아가,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내로 일궈낸 가족 구원과 아들의 헌신

성선심 부교 서울제일영문

할렐루야! 먼저 부족한 저를 통해 믿음의 고백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겪은 은혜들이 많지만 그중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학교 시절, 친구를 따라 처음 교회에 나갔지만 가족의 심한 반대와 체벌에 두려움을 느끼며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모할머니의 권유로 서울제일영문에 나오게 되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서 약 3년간 교회를 나가지 못했다가 아내는 동생의 도움으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6년째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은 여전히 제가 교회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족 구원이 늘 기도 제목이었지만, 용기 없음을 핑계로 미루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10여 년 전, 어머니는 모든 제사를 멈추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신앙생활은 길지 않았지만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시며 “나 교회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던 모습과 “할렐루야”를 외치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78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누구보다 건강하셨지만 갑작스러운 뇌경색 후 유증으로 요양병원 생활을 하던 중 “하나님이 나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며 처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담임사관님을 통해 영접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며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찾은 후, 우리 가정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명한 중식 셰프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아들은 현장에서 경력을 쌓고 있던 중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뒤 이직했으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심각한 피부질환을 얻고 모든 일을 멈추고 회복에만 전념해야 했습니다.

작년 군국 유스캠프에 스태프로

다녀온 후, 아들은 헌신의 마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헌신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에, 더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천천히 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구세군 전국청년대회에서 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서약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된 말씀을 들으며 헌신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들의 고백에 저는 “할렐루야”와 동시에 “주여”라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반응,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이라며 염려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제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새로운 여정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며, 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서비스코어 2기 치앙마이 134번째 개전국, 선교의 현장에 서다

글·정리 | 정위 이상근(남서울지방 청년담당관)

지난해에 이어 남서울지방은 서비스코어 2기를 출범하였다. 서비스코어는 청년들이 국제구세군의 사역을 경험하고, 공동체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구세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고민하도록 준비된 선교 프로그램이다. 특별히 서울지방과 전라지방 청년들도 함께하여 연합을 이루었다.

올해 사역지는 SMMT 군국¹의 태국으로 결정하였다. 태국은 구세군에서 가장 마지막인 134번째로 개전한 의미 있는 나라이다. 개전을 10여 년 전부터 준비하여 개전 3년을 맞이한 지금, 사역은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기반을 다지며 방콕과 치앙라이까지 확장을 이어가고 있고, 새롭게 건축한 본영 건물도 둘러볼 수 있었다. 구세군의 태국 사역이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가까이에서 목격하는 것 같아 깊은 감동이 있었다.

치앙마이 센트럴 영문을 중심으로 진행된 서비스코어 일정은 지역사회를 찾아가 악대, 위십, 합창, 놀이 프로그램, 줄넘기 공연 등을 준비하여 현지 사역자들과 호흡하며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 치앙마이 센트럴 영문의 군우들과 동역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감동과 도전이 되는 시간이 이어졌다.

서비스코어 기간 동안 청년들은 호세아와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며 각자가 받은 은혜를 자신의 말로 나누었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마음에 새겼다. 사역의 현장과 말씀의 시간이 이어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더 분명해졌다.

서비스코어는 분명 재정적인 투자와 많은 준비 에너지가 필요한 사역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미래와 삶의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이 시간은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값진 자리였다. 지방 차원에서 이러한 팀을 세우고 청년들에게 선교의 현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¹ SMMT 군국 : 싱가포르(Singapore), 미얀마(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말레이시아(Malaysia), 태국(Thailand)

축복이었다.

태국의 사역자들은 우리의 방문이 큰 힘이 되었다고 고백하였지만, 돌아보면 더 큰 은혜를 받은 쪽은 오히려 우리 자신이었음을 인정하게 된다. 특별히 작은 영문에서 참석한 청년들은 연합이라는 구조 안에서 이런 기회가 주어졌기에 자신도 선교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고백



했다. 이는 서비스코어가 개인을 넘어 구세군을 세우는 사역임을 보여 주는 고백이었다.

이번 사역이 가능하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사관님들과 군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는 공동체의 기도와 헌신 위에 세워진 이 여정이 앞으로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열매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강민지 청년(군포은혜영문)의 간증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주일에만 교회에 나오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뒤로 미루어 왔고, 세상의 기준 속에서 불안함을 안고 살며 안정만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와 영문 사관님의 권유로 서비스코어 치앙마이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자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준비 과정부터 현지 사역까지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부족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과 어울려 본 경험이 거의 없어 다가가는 것조차 어려웠고, 무엇을 해야 할지 늘 한 박자 늦는 제 모습이 답답했습니다. 매 순간이 긴장됐고 다음 일정이

두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침 묵상에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가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게임을 하며 웃는 아이들의 미소, 하나님을 배우며 집중하는 눈빛, 함께 찬양하며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치앙마이 서비스코어는 저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해 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제본영 설립 배경과 역할 건물 변천 이야기

세속 공간을 거룩한 공간으로 구세군 선교공간의 철학

글 | 부정령 황선엽(구세군 역사박물관장)

구세군 국제본영(International Headquarters)은 영국 런던 금융지구 중심부인 101 Queen Victoria Street에 위치한 세계 구세군의 행정·영적 중심지이다. 1881년 설립 이후 오늘날까지 동일한 부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 134개국에서 활동하는 구세군이 하나의 공동체로 협력하도록 이끄는 글로벌 선교본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본영은 세계 구세군이 동일한 영성과 교리, 사명을 유지하면서 각 나라의 문화와 상황에 맞게 선교하도록 돕는 중심 기관이다. 대장(General)의 영적 리더십 아래 참모총장과 여러 국제 부서들이 행정, 재정, 선교, 교육, 정책, 긴급구호, 사회정의, 개발 사업 등을 담당하며 세계 구세군을 하나의 선교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국제본영 설립의 역사적 배경

19세기 후반 구세군이 영국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로 급속히 확장되면서 이를 통합하고 지원할 중앙 기관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창립자 윌리엄 부스는 1881년 런던에 국제본영을 설립하였다. 이 기관은 국제 선교 전략 수립, 신학과 교리의 일치 유지, 자원 분배, 각 나라 구세군의 행정 지원을 담당하도록 계획되었다.

국제본영의 존재 이유는 분명하다. 각 나라 구세군이 독립적으로 사역하면서도 ‘한 몸’으로 연결되어 동일한 복음과 사명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제본영은 정책 결정 기관이면서 동시에 영적 연합의 중심이기도 하다.

20세기에는 세계대전과 경제공황, 난민 위기 속에서



최초의 국제본영 전경(1881)

긴급구호와 인도적 지원을 수행하며 글로벌 구호기관으로서의 위상도 확립하였다. 21세기에는 인권, 아동 보호, 재난 대응, 반인신매매 운동 등 다양한 국제사회정의운동을 추진하며 UN과 협력하는 국제기구로서의 역할도 강화하였다. 오늘날 구세군은 134개국에서 활동하며, “구세군이 있는 곳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는 표현처럼 지구촌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사역을 이어 가고 있다.

건물의 변천 : 당구장에서 세계 본부로

국제본영이 위치한 부지는 구세군 정신을 상징하는 장소이다. 이곳은 원래 종교 시설이 아니었다. 1881년 구입 당시 건물은 ‘빅토리아 당구장(Victoria Billiard Rooms)’과 주점 등으로 사용되던 세속적 오락 공간이었다. 윌리엄 부스는 이 건물을 구입하여 본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선택이었고 구세군 운동의 핵심 정신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1941년 2차대전 폭격으로 무너진 현장

이후 이 부지는 계속 국제본영으로 사용되었지만, 제 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 독일군의 공습으로 건물이 화재로 파괴되었다. 전후 재건을 통해 새롭게 재건축되었고, 1963년 엘리자베스 여왕 모후(母后)에 의해 준공 개관되었다. 21세기에 들어 조직의 확대와 현대적 업무 환경의 필요성으로 인해 다시 재개발이 이루어졌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재건축 기간 동안 본부는 윌리엄 부스 칼리지로 임시 이전하였다. 현재의 건물은 2004년 프린세스 로열(앤 공주)에 의해 개관되었으며, 그녀는 이 건물을 “일하는 건물이자 예배하는 건물”이라고 표현하였다. 현 건물은 약 34,861평방피트 규모의 현대적 시설로 국제 선교 행정 공간과 예배당, 공공 공간, 카페 등을 갖추고 있다. 이는 행정과 영성이 결합된 구세군의 정체성을 건축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세속 공간을 거룩한 공간으로 : 구세군의 선교 철학

국제본영이 당구장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은 구세군 선교 방식의 핵심을 보여 준다. 구세군은 전통적인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사역하기보다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는 장소로 들어가 그 공간을 변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했다. 윌리엄 부스는 “왜 좋은 음악을 악마에게만 줘야 하는가?”라는 말로 세속 문화를 복음 전도의 도구로 전환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당시 술집, 극장, 당구장 등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장소였지만, 구세군은 오히려 이러한 공간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 가난한 사람들도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 죄의 장소를 구원의 장소로 변화시키는 상징성

런던 동부에서는 여러 술집과 극장이 예배와 봉사 장소로 사용되었다. 이스턴 스타(Eastern Star) 술집과 에핑엄 팰리스(Effingham Palace) 극장은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이글 태번(Eagle Tavern)을 구세군 센터로 인수했을 때, 지역 상인들이 해골단(Skeleton Army)이라는 폭력 집단을 조직해 공격하기도 했지만, 구세군은 이를



1963년 재건축된 국제본영

영적 승리의 사건으로 극복하였다. 이 전략은 영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었다. 미국에서는 극장과 창고, 파리에서는 퇴락한 건물을 여성 보호 시설로 개조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공간을 통한 선교 신학

구세군 국제본영의 역사는 단순한 건물의 역사 이상이다. 그것은 복음이 특정한 거룩한 장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공간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학적 확신의 표현이다. 당구장에서 시작된 본부가 세계 134개국을 연결하는 선교 중심지가 되었다는 사실은 구세군 운동의 본질을 상징한다. 구세군은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는 대신, 그들이 있는 자리로 찾아가 그 공간을 변화시켰다.

따라서 국제본영은 단순한 선교 행정 기관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의 심장이라 할 수 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 온 이 건물은 구세군의 역사, 그리고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사명, 하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공간적으로 구현한 살아 있는 상징이다.



현재의 국제본영 전경



이웃의 겨울에 구세군이 함께하는 “54,400시간”¹⁾



구세군 ‘겨울 안심’ 연탄 나눔

글 | 이호영 주임(커뮤니케이션스부) 사진 | 홍보부

연탄하면 유명한 시가 떠오른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작품의 한 구절이다.

아직 서울에는 약 1,100가구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약 59,000가구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여러 가지 지원 사업으로 연탄보일러가 기름보일러로 점차 대체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은 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더욱 그들을 힘들게 한다.

구세군은 이러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연말마다 꾸준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대전에서 ‘행하는 믿음’팀이 쪽방촌에 2,000장(10가정), 전주영문이 지역사회에 1,800장(6가정)의 연탄 나눔을 진행하였고, 커뮤니케이션스국은 SHESMISS와 LIST의 의류 회사로도 알려진 인동FN의 후원을 받아 ‘겨울 안

심’ 난방비 지원 프로젝트로 3,000장(10가정)의 연탄 나눔과 전국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을 진행하였다.

지난 2월 25일, 구세군은 봉사자 11명과 직원 23명이 함께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개미마을을 찾았다.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이자 낙후지역인 개미마을의 각 가정에 연탄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연탄 한 장 한 장이 봉사자들의 손길을 거치고 창고에 쌓여 가는 모습을 보며, 연탄 한 장의 무게인 3.5kg보다 더 값진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채워지길 기대하였다. 이날 이성현 서대문구청장도 방문하여 직접 가구에 연탄을 전달하는 봉사자에 참여하였고, 구세군 홍보대사인 팽페라 가수 이사벨도 참여하여 뜻깊은 자리를 더욱더 빛내어 주었다.

이날 홍봉식 커뮤니케이션스국장은 “연탄 한 장에는 이웃의 겨울을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다”며 연탄 나눔의 의미를 전했다. 연탄 나눔에 참여했던

¹ 54,400시간: 연탄 6,800장이 8시간씩 태워지는 시간



전라지방본영 _ 전주영문 연탄나눔



충청지방본영 _ 대전 쪽방촌 연탄나눔



홍제3동 연탄나눔 단체사진



홍제3동 연탄나눔



홍제3동 연탄나눔



홍제3동 연탄나눔 _ 홍보대사 이사벨

한 봉사자는 “살면서 연탄을 처음 보았고, 연탄 나눔 또한 처음 참여했는데, 최근 들어 가장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치유되는 느낌이었다”라고 소감을 남겨주었다.

우리가 찾아가한 개미마을은 다른 동네와 공기가 다른 삭막함과 추위를 가지고 있었다. 늦겨울이지만 계곡에는 팡팡 얼은 얼음이 우리를 맞이하였고, 아직 녹지 않은 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웃의 겨울은 우리보다 일찍 시작해서 늦게 끝난다. 개미마을의 겨울 끝까지 따뜻함으로 동행하고 싶었던 이번 연탄 나눔은, 구세군이 긴급구호 현장에서 끝까지 남아 현장을 위로하려

는 모습과 닮아 있다. 도움이 가장 절실한 순간에 끝까지 곁을 지키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에 담긴 구세군의 마음이 아닐까?

연탄은 1장당 약 6~8시간의 난방 지속력을 가지고 있다. 한 가구에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려면 약 1,000장의 연탄이 필요하다. 에너지 취약지역은 그보다 더 많은 연탄이 필요하다. 지난 겨울 구세군이 나눈 총 6,800장의 연탄이 태워지는 54,400시간은 어쩌면 그들에게 다른 의미이지 않을까? 구세군은 앞으로도 소외된 여러 이웃들을 위하여 끝까지 진실하게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며 노력할 계획이다.

문화를 읽고(Reader),
문화를 이끄는(Leader) 문화 리더 **2**

미디어 금식(禁食) VS 미디어 미식(美食)



참령 신용혜
교육부장

최근 필자는 기독교 서점에 서 『미디어 미식』이라는 책을 읽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얼마 전 화제가 된 프로그램 ‘흑백요리사’를 떠올리게 되었다. 요리라는 익숙한 소재를 통해 ‘선택’과 ‘집중’, ‘본질’을 이야기하는 이 프로그램은 오늘날 우리가 미디어

어를 대하는 태도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에 미디어를 끊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미디어 금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대중문화에 대한 신앙인의 경계와 결단을 상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미디어를 완전히 단절한 채 살아갈 수 없다.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일상이 된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2026년의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미디어 속에 머문다. 그래서 이제는 미디어를 어떻게 완전히 끊을 것인가를 묻는 ‘미디어 금식(禁食)’의 문제보다는, 미디어를 어떻게 잘 소비할 것인가를 묻는 ‘미디어 미식(美食)’이라는 개념이

더욱 중요해졌다. 미디어 미식(美食)이란 무분별한 정보 섭취를 멈추고, 무엇을 받아들일지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좋은 콘텐츠를 깊이 있게 음미하는 태도다. 이는 세상을 외면하는 일이 아니



흑백요리사 2

리더(Reader)가 리더(Leader)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Reader) 사람이
시대를 이끌고(Leader),
사람의 마음을 읽는(Reader) 사람이
사람을 이끌며(Leader),
성경을 읽는(Reader)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리더(Leader)가 된다.



미디어 미식

라, 세상을 더 건강하게 바라볼 힘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흑백요리사’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은 화려한 기술보다 재료의 본질과 조리의 철학에 집중하는 셰프(chef)들의 모습이었다. 미디어도 마찬가지다. 자극적이고 빠르게 소비되는 콘텐츠가 아니라, 영혼을 살피우는 책과 다큐멘터리, 선한 상상력을 키우는 영화, 삶의 시야를 넓혀주는 인터뷰와 강연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영양가 있는 문화의 자양분(滋養分)이다.

결국 진짜 실력은 많이 소비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드러난다. 문화 리더란 세상의 정보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듣고 읽을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다. 매일의 선택이 우리의 문화 감각을 만들고, 그 문화 감각이 다음 세대의 문화를 결정한다. 이제 우리 모두 문화를 읽고(Reader) 문화를 이끄는(Leader) 문화 리더가 되어 세상과 교회를 맛있게 만들어 가는 문화 요리사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82 찬송가 691장

주님 닮기를 나 소원합니다

To Be Like Jesus



정위 최관현
마포영문 담임사관

이번에 소개할 찬양은 구세군가 691장 ‘주님 닮기를 나 소원합니다’(To Be Like Jesus)이다. 이 찬양은 구세군 16대 대장이었던 존 가완스 사관(John Gowans, 1934~2012)이 작시한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간절

한 소망을 담아 작사하였고, 곡은 존 가완스 사관의 다음 대장이었던 존 라슨(John Larsson, 1938~2022) 사관이 작곡한 곡이다. 이 곡은 회중이 쉽게 부르며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만들어진 곡으로 많은 구세군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곡 중 하나이다.

이 찬송은 단순하지만 가사와 선율을 통해, 신앙이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닮아가겠다는 존 가완스 사관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 특히 이 곡은 구세군이 강조해 온 성결(Holiness)의 영성을 잘 담아낸 찬송이다.

이 곡은 4/4박자의 뭇 갓춘마디로 시작하며 조성은 G Major이고 템포는 보통으로(Moderato)이다. 선율은 완만한 음계적 진행(stepwise motion)을 사용하였고 음폭이 높지 않아서 회중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

691주님 닮기를 나 소원합니다

John Gowans(1934~2012)

예수를 같이 생각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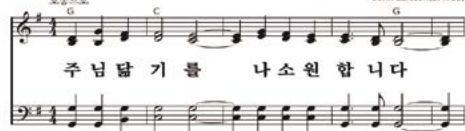
군가 46

3도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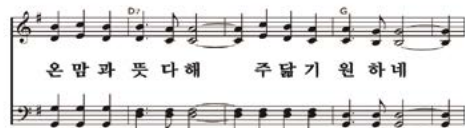
(회 3:1)

TO BE LIKE JESUS(TE 898)

John Larsson(b. 1938)



주님 닮기를 나 소원합니다



온맘과 뜻 다해 주 닮기 원하네



주님 닮기를 나 소원합니다



날도와 주시는 성령이여

To be like Jesus!

성결한 생활

이 곡의 하이라이트는 “주님 닮기를 나 소원합니다”이다. 이 문장은 단순히 소망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한다. 믿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예수님을 닮기보다 세상의 기준과 상황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끊임없이 요청한다. 주님을 닮아가려는 삶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구세군가 691장 ‘주님 닮기를 나 소원합니다’(To Be Like Jesus)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며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구세군인들이 되기를 바란다.



1				2	12		13
3		14		4			
		5					
	6			7		15	
16			8				
		9			10		
11							

- **보내실곳** :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16층 구세군 편집부
- **상 품** : 믿음상(1명) 도서문화상품권 30,000원
소망상(2명) 도서문화상품권 20,000원
사랑상(5명) 도서문화상품권 10,000원
- **마 감** : 2026년 4월 30일
- **해답 및 당첨자 발표** : 구세공보 2026년 6월호



십자말풀이를 이메일로 응모할 경우 warcry@hanmail.net으로 전송하되 답안을 기록하여 반드시 사진파일 또는 스캔파일로 첨부하고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가로풀이

1. "아스돗 사람들이 아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OO O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삼상 5:7)
2.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후 이 기간 동안 비가 내렸다. (창 7:1~12)
3.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시며 정해주신 방주의 재료가 되는 나무의 종류 (창 6:14)
4. 북이스라엘의 제17대. 즉위 후 나라 기울어감에도 선대의 죄악을 끊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있다가 고작 2년의 통치를 끝으로 암살당해 죽은 왕 (왕하 15:22~26)
5. 요셉이 죽은 후, 애굽은 국고성 OO과 라암셋을 짓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력으로 동원하여 괴롭게 했다. (출 1:11)
6.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 두 명의 정탐꾼을 몰래 보낸 출발지 (수 2:1)
7. 신앙성경 사복음서 뒤에 위치한 다섯 번째 수록된 성경.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경험한 성령체함과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록된 성경 (행 1:1~2)
8. 감옥에서 가적으로 구출된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가 문을 두드렸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한 여자아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지도 않고 일행에게 달려려 갔다. (행 12:13)
9. 회복된 예루살렘 성(또는 미래의 교회)의 이름을 칭하며 기록 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 여호와OO (겔 48:35)
10. 라반의 여종이었으나, 야곱과 라헬이 결혼할 때 라반이 딸 라헬에게 귀속시킨 몸종 (창 29:29)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하자, 대리모로서 야곱의 첩이 되었다. (창 30:3~7)
11. 레위의 아들. OOO과 고탕과 모라리 (출 6:16)

세로풀이

1.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회중의 OO OO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만들어진 곡이다. (2026년 2월 구세공보 25페이지)
7.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 칭찬 없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가장 뼈아픈 책망을 받은 곳 (계 3:1~6)
8.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OO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행 23:11)
9.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자란 이스라엘의 사사. 과력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으나, 온갖 기행으로 사사당치 못한 삶을 살았다. 최후에는 블레셋인들과의 공멸을 선택하며 복수를 선택했다. (삿 13:24)
12. 우리가 저야 하는 OOO는 억지로 끌려가는 형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스스로 선택하여 살아가는 실천적 삶이 되어야 합니다. (2026년 2월 구세공보 4페이지)
13.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여인과 결혼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인격적인 해결 방식에 반대했던 인물 (스 10:10~15)
14.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돌을 던지며 모세를 원망했던 곳 (출 17:1~6)
15.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의 만남,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은 구세군 영성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OOOO 믿음'임을 몸으로 배우게 한다. (2026년 2월 구세공보 11페이지)
16. 빌립이 전도했던 내시가 섬기던 에티오피아의 여왕 (행 8:27)

366회 정답

- 가로정답** 1. 나이만 2. 완전한자 3. 아벨그라뎀 4. 고스비
5. 에글라 6. 보디베라 7. 토로

- 세로정답** 1. 아비예셀 2. 고령화 3. 아스벨 9. 전쟁 10. 자선냄비
11. 셀라 12. 그두라 13. 살로메 14. 나사로 15. 가보

366회 당첨자

- | | | | | |
|------------|-----|--------|-----|--------|
| 믿음상 | 윤선미 | 대전 서구 | | |
| 소망상 | 문영준 | 대전 유성구 | 박미자 | 경기 안양시 |
| 사랑상 | 김리나 | 광주 북구 | 박영수 | 충남 예산군 |
| | 신미정 | 전남 무안군 | 장인순 | 서울 은평구 |
| | 조한석 | 경기 의정부 | | |

BOOK

어린이를 위한 고난주간 묵상집

구세군출판부 도서소개

지은이 구세군 청년부 출판사 구세군 출판부 발행일 2026.3.12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교회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 묵상집이 출간되었다. 저학년(6세~초3)은 컬러링 활동을 통해, 고학년(초4~초6)은 QR 말씀 영상을 활용해 스스로 즐겁게 묵상할 수 있다. 또한 보호자용 안내서가 함께 구성되어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묵상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구매 및 문의

구세군 청년부 T.02-6364-4179

저학년을 6세~초3

- 친근감 있는 이미지 컷
- 컬러링으로 참여하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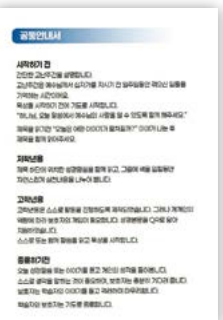
고학년을 초4~6

- 큐알로 쉽게 접근하는 메시지
- 질문으로 한번 더 메시지 생각



안내서 묵상팁

- 성경 배경, 말씀 핵심 수록
- 묵상을 실천으로 이끌어내는 TIP



스며드는 파고드는 클라스가 다른
50days 전도운동

복음으로
스파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4:14

2026년 4월 5일(주일) ~ 5월 24일(주일)



구세군대한본영
The Salvation Army Korea Territory



여러분 가까이 구세군이 있습니다

구세군은 윌리엄 부스와 캐서린 부스에 의해 1865년 영국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기독교 교단이며 현재 전 세계 134개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은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라는 슬로건 아래 복음을 전하며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구세군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https://www.thesalvationarmy.or.kr>



구세군 활동과 국내소식
<https://zrr.kr/qFBT8b>